

## 한국현대미술의 오늘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2016>展 개최

October , 2016

### 20세기 개념미술의 대가, 조셉 코수스 특별 대담 열려



조셉 코수스 특별 대담 현장 ©김정아

지난 9월 6일 개념미술의 선구자 조셉 코수스(b.1945)가 서울대학교 미술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시 《아트 스페이스 독일》을 기념하여 내한했다. 이날 코수스는 서울대학교 미술관 오라토리움에서 '공적 영역에서 텍스트의 문화적 삶과 몇 가지 측면들'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많은 청중이 참석한 본 강연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우선 작가의 전반적 삶과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의 작품세계를 작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소개한 뒤, 모더니즘에 대한 입장과 최근의 포스트모던 작업들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코수스는 설치미술의 중요성에 대해 거론했는데, 일종의 무대장치로서 공간과 재료를 대안적으로 사용하는 설치미술의 방식이 작가들에게 담론과 표현에 있어 혁신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이와 같은 방식이 예술 작업에 비판적 자율성을 부여하고 모더니즘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코수스는 컨텍스트와 긴밀한 관련을 맺는 텍스트 중심의 공공미술 작업을 소개하며 강연을 마무리 하였다.

### 한국현대미술의 오늘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2016>展 개최

국립현대미술관(관장 바르토메우 마리)과 SBS문화재단(이사장 윤세영)이 공동 주최하는 <올해의 작가상 2016>전이 지난 8월 31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개최되었다. 올해 대표작가로는 김을(b.1954), 백승우(b.1973), 함경아(b.1966), 믹스라이스(조지은 b.1975, 양철모 b.1977) 4명이 선정되어 SBS문화재단의 창작 후원금을 바탕으로 준비한 독창적이고 역량 있는 신작들을 한 자리에서 선보인다. 김을은 제1전시실에 실제 크기에 가까운 자신의 작업실을 설치하여 관객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치열한 창작 활동의 공간이 김을이라는 예술가의 자아를 보여주는 장치가 된다. 제2전시실에 설치된 백승우의 사진들은 사진이라는 매체의 형식적 한계를 넘어 다양한 실험을 통해 이미지 해석의 가능성을 확장시켰다. 제2전시실에 함께 배치되어 있는 함경아와 믹스라이스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이주' 현상을 주목하여 보다 동시대적이고 현실적인 고민들을 다룬다. 한편, '올해의 작가상'은 각 작가들의 전시 작품에 대한 최종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13일에 발표될 계획이다. 최종 수상 작가는 1,000만원의 후원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며, 후보 작가 및 최종 수상자의 작품 세계를 조망하는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어 SBS 지상파와 케이블 채널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전시는 2017년 1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시계방향  
함경아, 믹스라이스(조지은, 양철모), 백승우, 김을  
이미지 제공 : 국립현대미술관